

이야기 8: 이삭과 리브가

주제말씀
[창세기 24:67]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오래 전에 떠난 고향 하란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직한 하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신붓감을 구해 오라 했어요.

하인은 먼 길을 떠나 마침내 하인은 저녁 무렵 하란에 도착했어요.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한 하인은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잠시 쉬었어요.

그리고 하인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처녀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이니 그 중 저 뿐만 아니라 낙타들이 마실 물까지 주는 처녀가 이삭의 아내로 정해진 자로 알겠습니다.”

잠시 후, 한 처녀가 물 함아리를 지고 우물가로 왔어요. 하인은 처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물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리브가가 대답했어요. “이 물을 드세요. 낙타들도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셨구나. 그럼 이 아가씨가 바로 이삭 도련님의 아내가 될 여자구나.’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였어요.

하인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인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에 도착할 때 이삭은 들판을 거닐고 있었어요.

하인은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고 이삭은 리브가를 집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24:67)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8 Isaac and Rebekah